

## 밀턴의 '아레오파지티카'

임상원

중재위원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자유 이론사(史)에 있어서, 존 밀턴(John Milton)의 '아레오파지티카'(Areopagitica)만큼 유명한 문헌은 많지 않다. 때문에 언론 관련인들에게 '아레오파지티카'는 결코 낯설지 않은 이름이다. '아레오파지티카'는 영국이 내란 중 의회가 1643년에 인쇄 출판 허가법을 만들자 이를 폐지할 것을 주장한 밀턴이 1644년 발표한 에세이 형식의 글이다. '아레오파지티카'는 "사상의 공개시장"이라는 언론자유 핵심적인 개념을 제시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한마디로 밀턴의 '아레오파지티카'는 언론의 자유를 논의할 때는 으레히 한 두 구절이 인용되는 인류의 역사적 고전이다. 당시 의회가 만든 법은 모든 출판물은 사전 검열을 받은 후 허가를 받아야 하게끔 요구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서적의 수입이나 판매도 출판공사(Stationer's Company)라는 기관이 독점하고 동시에 위법 출판물을 수색 압수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한 것이었다. '아레오파지티카'는 이의 부당성을 비판한 글이다.

밀턴이 '아레오파지티카'에서 전개한 주장은 네 개로 되어 있다. 첫 번째 주장은 출판 허가의 역사적 뿌리를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정치적 야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대 국가, 즉 아테네나 공화정 시대의 로마의 예를 들면서 허가제가 고대에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허가제가 중세의 종교재판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두 번째 주장에는 주된 두 종류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기독교적인 원죄의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연권적인 인간의 이성과 자율성이다. 밀턴의 주장 가운데 이 부분이 언론자유 이론사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기여를 한 대목인 '아이디어의 시장'과 '자율조정'원리가 주장된 부분이다. 밀턴은 선과 악은 함께 얽혀져 있으며 두 쌍둥이가 함께 붙어서 나오는 것처럼 함께 태어나는 것으로 이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맛본 결과이다라고 말한다. 이로부터 인간은 선과 악을 함께 알아야 하게끔 운명 지워졌다고 말한다. 이는 인간의 원죄적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타락하여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올 때 맨몸으로 쫓겨나온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일 때 지니고 있던 일부의 능력을 갖고 나왔다. 그것이 '이성'이다. 그러하여 인간은 이성을 갖고 선과 악 진실과 허위 가운데 선과 진실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는 "책도 고기나 음식과 같은 것이다. 그 본질에는 선한 부분도 있고 악한 부분도 있다. 좋지 않은 위에 좋은 고기란 좋지 않은 고기와 아무런 차이가 없고 최선의 책이라도 좋지 못한 정신에게는 악의 기회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나쁜 고기라도 가장 좋은 조제약을 만드는 데 재료가 되는 일이 드물게는 있다. 나쁜 책일지라도 분별력 있고 현명한 독자에게는 많은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요컨대 그가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으며 인간의 환경은 선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악과의 대면은 불가피한 원죄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책을 통해 지식을 얻음으로써 악을 배제하고 선을 선택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밀턴의 세 번째 주장은 출판허가제는 현실적으로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밀턴은 허가제는 "공원의 문을 닫고서 공원 안의 모든 까마귀를 가두어 놓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아레오파지티카'의 네 번째 주장은 출판의 허가조례가 선, 즉 진리의 발견을 위해서는 공개적인 토론이 허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 관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출판의 허가제는 공개적인 토론을 두려워하며 이를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발견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것들이 '아레오파지티카'에 담겨져 있는 주장의 개략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부언해야 할 것이 있다. 밀턴이 이렇게 언론의 사전 억제를 반대하였지만 사후의 책임까지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언론의 자유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어려운 문제는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언론행위 가운데 그것이 언론이기 때문에 책임이 면제되는 범위를 어디까지 용인해야 하고,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포함하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사유를 성숙시키기 위해 밀턴의 '아레오파지티카'는 다시 한 번 읽어 볼만한 문언이라고 제안한다.